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 지속가능한 산업용 건축물의 재사용

## Adaptive Reuse / Conversion of Old industrial Building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이 기존의 건물들이 목적을 바꾸어 새롭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것은 특히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왔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

이번호에 소개할 두 작품은 오래된 산업용 건물을 최소한의 작업으로 마감하여 완성시키거나 필요에 따라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예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물들이다. 공업/산업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기능적 특성상 공간적으로 가변성과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시 공간으로 재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의 유명한 예로써 런던의 Tate Modern Museum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건축사 Herzog & De Meuron은 기존의 전기 발전소였던 건물을 훌륭한 예술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그 도시의 기억을 새롭게 썼다.

### ■ Long Museum West Bund, Shanghai

첫번째로 소개할 건물은 2014년도에 Atelier Deshaus에 의해서 디자인된 Long Museum West Bund이다. Atelier Deshaus는 상해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LIU Yichun, ZHUANG Shen, CHEN Yifeng가 이끄는 젊은 중국의 건축사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현대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실성, 장소성, 기술성을 개인적인 Poetry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Long Museum West Bund는 상해의 Xuhui 지구, Huangpu강의 제방에 위치한다. 이곳은 1950년대에 석탄 수송을 위한 부두였다.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 건물이 위치할 사이트에는 지어진 폭 110m, 길이 10m, 높이 8m의 거대한 지하 주차장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이것을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대신에 이곳의 산업적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원래 이 거대한 지하주차장의 골격구조와 몇몇 지상의 잔부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건물이 통합되는 방식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은, 한편으로 기존의 전단벽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구조 자체이면서 공간구성이 가능한 구조 유닛unit을 구상하였다. 이는 바로 Vault-Umbrella 구조 유닛(이를 번역하면 우산모양처럼 생긴 둥근 천장 구조가 될 것이다)으로서 기둥이자 벽이자 천장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일체를 이루며 비교적 자유로운 전시 공간배치를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 및 기계 설비 시설 등은 이 우산 모양의 볼트 유닛에 완벽하게 통합되었으며, 마치 레고를 조립시키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의 구조위에 오버랩되며, 수평·수직 방향의 격자무늬를 따라 배열되었다. 지하층의 주차장은 "화이트 박스" 전시 공간이 되고, 지상층은 Vault-Umbrella 구조유닛에 의한 투명한



Long Museum

게 “흐르는” 전시 공간이 된다.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은 하향 나선형 사다리를 통해 연결된다. 구조 유닛은 전체적으로 매끈한 매스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계선도 볼 수 없이 콘크리트 캐스트로 마감하였다. 벽에서 점차 천장이 되고 그 천장의 끝에는 자연광이 공간으로 스며든다. 어찌 보면 이 구조가 가지는 형태적 간단함이 아주 원시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시대감을 그대로 직시하게 한다. 콘크리트 재료가 주는 거칠고 완성되지 않은 산업성은 그에 관련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만, 공간적으로는 일관되게 되풀이 되는 구조 유닛의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가지고 있어 모순적이면서도 오묘한, 무거우면서도 투명한 공간을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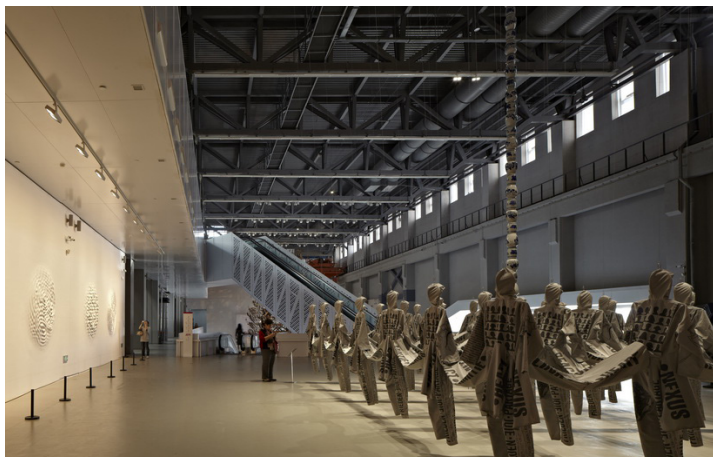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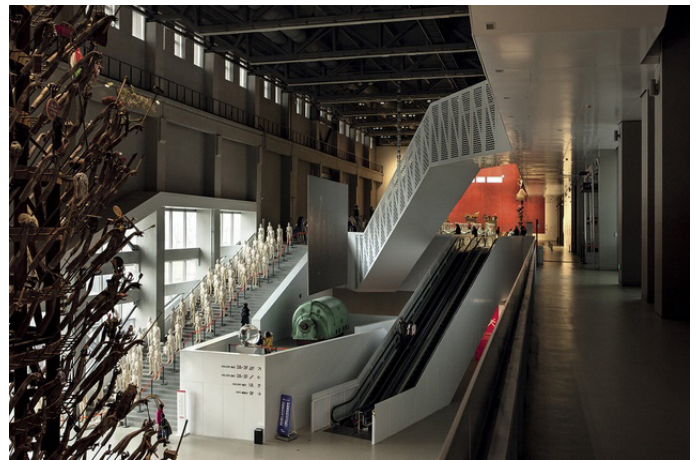
#### ■ Power Station of Art, Shanghai

두번째로 소개할 건물은 상해의 엑스포 사이트와 가까이 위치에 있는 Power Station of Art-예술의 발전소-이다. 이 건물은 상해의 Original Design Studio에서 진행하였으며, 1985년에 지어진 “Nanshi 발전소”를 더 이상 전기발전소가 아닌 “예술의 발전소”로 탈바꿈 시킨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발전소의 산업적 임무가 중단됨에 따라서 거대한 전기생산 기계를 드러내고 6년에 걸쳐 문화와 예술을 촉진하는 기계로의 변형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산업적으로 쓰여졌던 만큼 거대한 면적을 이용하여 이 공간은 현대미술 전시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예술, 여가 활동들을 도시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도시와 대응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굴뚝을 보며 이 건물에 접근하다보면 열린 광장이 보이고 이 건물을 들어서자마자 전체높이에 달하는 입구 홀의 전시 공간에 이른다. 철강구조와 메탈 플레이트로 마감된 많은 부분들이 전시공간의 곳곳마다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부분적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산업적 분위기의 특성과 현대예술의 장이 한층 직접적으로 오버랩되어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방문자가 전시공간의 구성 원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산업적 건물이었던 만큼 넓고 신축성 있는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롭게 다양하게 열려있는 전시공간 방식을 취하였다. 건물 지붕은 오픈 데크로 열려둬으로써 강을 둘러싼 상해의 엑스포를 포함한 도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wer station of Art